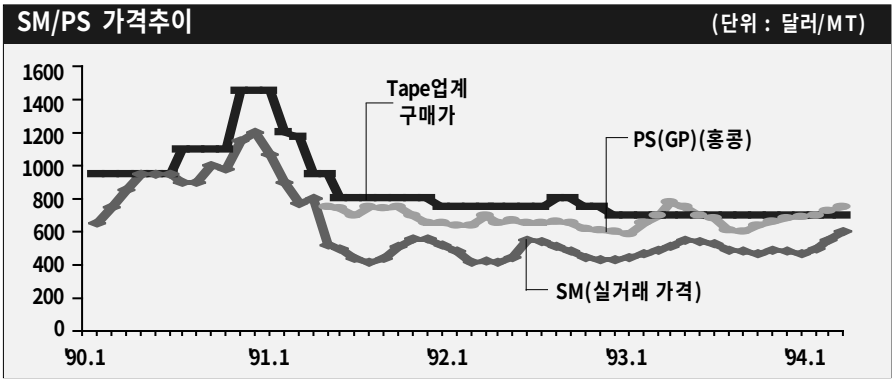
PS 가격 기습인상“ 충격"

톤당 100~150달러 … Tape, 동부 · 효성제품 구매거부

국내 PS 생산기업들이 PS가격을 톤당 100~150달러 인상키로 하고 이를 수요기업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미원과 제일모직, 효성 BASF 등 PS생산기업 중역들은 지난4월 모임을 갖고 SM가격 인상에 따라 PS가격을 전기전자 분야는 톤당 50달러, Tape업계에는 100달러 인상키로 하고 이를 수요기업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PS기업들의 가격인상은 GP기준으로 2년동안 89만원을 유지하는 등 그동안 가격 인상이 없는데다 최근 SM가격이 610달러 까지 급등하는 등 원가부담 요인이 커지고 있고, 국내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활기를 띠고 수출가격도 호전되는 등 가격 주도권이 생산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PS생산기업 중역들은 4월 회합을 통해 현재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되고 있는 Tape업계에만 가격인상을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SM가격 하락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로 하반기 이후에도 가격하락 요인이 크지않다고 판단, 이를 전부문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Tape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내수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Tape업계는 일정부문 가격 인상요인을 인정하지만 일방적인 가격인상 통보로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침체 양상에서 벗어나 94년들어 서서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Tape업계는 또 자기테이프가 광 디스크로 대체되는 등 사양화 추세이고 오디오 부문은 95년 이후에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돼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Tape업계는 새한미디어가 약 20억원, SKC가 17억원, SKM과 금성사가 각각 10억원 등 8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Tape업계는 6월분 수주 물량부터 동부화학과 효성 BASF의 물량 구매를 거부키로 하고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6/6>